

동의과학대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 선정

국제신문 정홍주 기자 2016-12-19 19:41:09 / 본지 18면

동의과학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표한 '2017년 시행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별 교육·훈련과정 지정 공고'에서 부산지역 전문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의과학대는 내년부터 과정평가형을 통해 컴퓨터정보과에서는 정보처리산업기사, 기계계열에서는 기계설계산업기사, 미용계열에서는 헤어미용 분야 미용사 과정평가형 자격증 과정 등 총 6개 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후, 내·외부 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생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교육 제도이다.

특히,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기존의 검정형 자격제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판단해 자격을 부여했던 것과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장과 교육의 괴리를 좁히고 재학생의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의과학대 김영도 총장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는 산업현장의 직무를 중심으로 교육과 자격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향후 대학 전체 학과로 과정평가형 자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의과학대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기계계열 기계설계산업기사를 시작으로 현재 4개의 과정평가형 자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직무수행 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홍주 기자